LIFE 전 아사히신문기자의 '일본 뚫어보기'

소주·치킨·라면·오징어게임…일본에 '한국'이 넘쳐난다

나리카와 아야
전 아사히신문 기자

참이슬, 동네마트서도 구입 가능
유치원생들 '무궁화 꽃이…' 놀이

'이태원 클라쓰' '사랑의 불시착' 넷플릭스서 여전히 일본 TOP10

소설 '아몬드' 도쿄서 연극 공연 한국 작품 줄줄이 리메이크 예정

일본은 새해 들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격히 늘어났다. 아직 확진자 수가 적었던 연말연시에 지방에 있는 가족과 친척들을 만나길 잘했다는 생각이다. 1월 중순 이후 도쿄를 비롯해 여러 지역에서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를 적용해 음식점은 9시에 문을 닫는 등 또다시 제한이 엄격해졌다.

오랜만에 만난 조카는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다고 한다. 내가 한국에서 왔다는 걸 알고 "나도 한국어 할 수 있다"며 자랑스럽게 들려준 한국어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였다. '안녕하세요'도 '감사합니다'도 모르는 아이의 입에서 어려운 한국어가 튀어나와 깜짝 놀랐다. 물론 세계를 석권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게임' 때문이다. 일본에도 '달마상이 넘어졌다(だるまさんが?んだ)'라고 하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와 똑같은 놀이가 있다. 요즘 일본 유치원에선 그 게임을 하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고 한국어로 외치며 노는 게 유행인 모양이다. '오징어게임'은 유치원생이 보기엔 잔혹한 장면도 많아 잠시 걱정했지만, 조카는 넷플릭스에서 본편을 본 게 아니라 유튜브에서 '오징어게임'을 소개하는 동영상을 봤다고 한다.

배달 문화 발달, 한국식 치킨집 급증

9개월 만에 일본에 돌아와 느낀 건 예전보다 더 '한국'이 넘쳐난다는 것이다. 사람들의 대화에서 튀어나오는 한국 관련 화제도 그렇고, 가게에서 보는 한국 관련 상품도 확실히 많아졌다. 넷플릭스 등을 통해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기회가 많아져서 관심은 높아진 반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실제로 한국에 가는 건 어렵게 되면서 일본 내 한국 관련 상품 유통이 늘어난 듯하다.

대표적인 상품이 한국 소주 '참이슬'이다. 한국 드라마에 소주가 자주 나오기도 하고, 특히 드라마 '이태원 클라쓰'의 영향력이 컸다. 주인공 박새로이(박서준)가 운영하는 포차 '단밤'에는 소주가 자주 등장했다. 새로이와 아버지가 소주를 마시며 "술맛이 어떠냐" 물었을 때 새로이가 "달아요"라고 답했던 장면도 인상 깊다. 나는 한국 드라마에 유독 자주 등장하는 술이 맥주도 막걸리도 아닌 소주인 이유가 어떨 땐 달고 어떨 땐 쓰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시험에 합격했을 때, 연인과 헤어졌을 때, 상사한테 혼났을 때 등등 여러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맛이다.

'이태원 클라쓰' 방송 이후 일본에서 참이슬이 잘 팔리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일반 동네 마트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예전엔 한국 식품 전문 마트에 가야만 살 수 있었는데 말이다. 젊은 여성들이 좋아할 만한 청포도 맛, 딸기 맛 등 종류도 다양하다. 일본의 참이슬 광고도 화제다. 코세키 유타(小?裕太)와 사쿠마 유이(佐久間由衣)라는 일본 남녀 배우가 한국 드라마를 패러디한 것이다. 한국어와 일본어를 섞어서 여성이 '심쿵' 할 만한 남성의 행동들을 중심으로 드라마 예고편처럼 만들었다. 일본에서 한국 소주는 젊은 여성들이 즐겨 마시는 귀여운 술로 이미지가 변한 듯하다.

소주뿐만 아니다. 할인잡화점 '돈키호테'에는 한국 식품 코너가 생겼다. 영화 '기생충'에 나온 '짜파구리' 때문에 유명해진 제품 '짜파게티'와 '너구리'를 비롯해 여러 종류의 한국 라면이 진열돼 있고 고추장이나 쌈장 등도 팔고 있다. 이제 한국에서 따로 사올 필요가 없을 것 같다. 한국식 치킨집도 급증했다. '사랑의 불시착'을 비롯한 한국 드라마의 영향도 있고 코로나19 이후 일본에서도 배달 문화가 발달했기 때문이다.

'이태원 클라쓰'나 '사랑의 불시착'은 2년 전 방송한 드라마지만 일본에서의 인기는 오래간다. 넷플릭스 '오늘 일본의 TOP10'을 보면 두 드라마가 지금도 10위 안에 들어있다.

최근 한 대학생으로부터 '한국 드라마와 음식'이라는 주제로 인터뷰 요청을 받았다. 신문학과 학생인데 신문용 과제 때문이란다. 학생은 이 주제를 잡은 이유를 "코로나19 유행 이후 한국 드라마에 빠졌고, 일본 드라마에 비해 먹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그 요리들이 먹음직스러웠기 때문"이라고 했다. 나도 관심 있는 주제라 온라인으로 1시간 정도 즐겁게 이야기를 나눴다. 학생이 "일본에서 이렇게 한국 드라마와 음식이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한국 사람들도 아나요?"라고 물었다. 나는 "잘 모르는 사람도 많은 것 같다. '겨울연가'로 욘사마 붐이 일어났을 때는 한국을 찾는 일본인이 갑자기 많아져서 한국 사람들도 일본 내 한국 드라마의 인기를 실감했지만,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왕래가 거의 없어서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다"고 솔직하게 대답했다. 학생은 아쉽다는 표정을 지었다. 일본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사실이 전달되면 한국 사람들의 일본에 대한 감정도 좋아지지 않을까 기대하는 듯했다. 한일 왕래를 계속하는 나라도 이 사실을 전달해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글을 쓰고 있다

한국 작품이 일본에서 재탄생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손원평의 소설 '아몬드'의 연극 공연이다. 2~3월 도쿄에서 무대가 열린다. 소설 '아몬드'는 2020년 일본에서 서점 대상 번역소설 부문 1위에 뽑히며 주목을 받았다. 지금도 서점에 가면 조남주의 '82년생 김지영'과 함께 눈에 잘 들어오는 자리에 진열돼 있다.

연극 '아몬드'의 각본과 연출을 맡은 이타가키 교이치(板垣恭一)씨를 만나 원작의 매력에 대해 물어봤다. 이타가키씨는 소설 '아몬드'의 표지가 마음에 들어서 책을 샀다고 한다. 일본어판 '아몬드' 표지도 한국 원작과 똑같은 무표정한 남자의 그림이다. 감정 표현 불능증을 앓고 있는 주인공 고등학생 윤재의 얼굴이다.

연극은 두 주연 배우가 교대로 윤재와 곤이를 연기한다. 윤재를 괴롭히다가 나중에 친구가 되는 곤이는 윤재와는 반대로 느끼고 싶지 않은 것까지 느끼는 민감한 고등학생이다. 이타가키 씨는 "윤재도 곤이도 나와 닮았다"고 했다. "극과 극인 것 같으면서 민감하기 때문에 모르는 척하는 우리 이야기"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현대인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며 원작의 매력을 이야기했다.

할인잡화점에 한국 식품 코너도 생겨

작년 12월 오사카에서 방화 사건이 일어났다. 현장은 병원이었고 환자와 의사, 범인을 포함해 26명이 사망한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1월에는 도쿄대학교 앞에서 수험생들이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일어났다. 무차별로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는 사건 뉴스를 보며 나는 '아몬드'가 떠올랐다. 윤재의 어머니와 할머니가 휘말린 사건과 비슷해 보였기 때문이다.

이타가키씨가 "모르는 척하는 우리"라고 지적했듯, 많은 현대인이 자기 일에 바빠서 고립된 사람을 못 본 척한 결과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아몬드'에서는 윤재가 곤이를 통해 성장하고, 또 윤재는 곤이를 살린다. 이타가키씨는 "결국 사람이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또 사람 때문에 위로 받기도 한다. '아몬드'에는 그것이 그려져 있다"고 했다.

이타가키씨는 자신이 사회파 엔터테인먼트를 지향한다고 했다. 엔터테인먼트로 즐길 수도 있지만 사회 문제도 언급하는 작품이다. 그것이 바로 내가 한국 영화에서 느끼는 매력이기도 하다. 또한 '오징어게임'을 포함한 한국 작품들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는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아몬드' 외에도 일본에선 '기생충'의 연극무대가 예정돼 있다. 영화 '건축학개론'과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리메이크도 보도되고 있다. 한국 작품이 일본에서 어떻게 재탄생할지 앞으로 잘 지켜보고 싶다

〈광주일보와 중앙 SUNDAY 제휴 기사입니다〉

1 동네 작은 마트에 진열된 한국소주 '참이슬'. 청포도맛, 딸기맛 등이 첨가된 소주는 일본의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다. 2 드라마 '이태원클라쓰'의 주 배경인 됐던 포자 '단밤'의 밤 풍경. 테이블 위는 가득 찬 소주병으로 온통 초록색으로 덮여 있다. 3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포스터. 4 일본 최대의 멀티 잡화점 '돈키호테'에 들어선 한국 식품 코너. 진열된 제품은 라면부터 커피믹스, 쌈장까지 종류도 다양하다. 5 2월 25일부터 3월 13일까지 도쿄에서 공연되는 연극 '아몬드' 포스터. 6 일본에서 출간된 한국 소설 '아몬드' 표지. 7 전 세계인을 사러잡았던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과 작품 속 게임에 등장했던 술래인형.〈사진 나리카와 아야, 영상 캡처, 공식 홈페이지 캡처, 넷플릭스〉

나리카와 아야(成川彩) 2008~2017년 일본 아사히신문에서 주로 문화부 기자로 활동했다. 동국대 박사과정을 밟으면서 프리랜서로 일본(아사히신문 GLOBE+ 등)의 여러 매체에 영화 관련 칼럼을 집필 중이다. 2020년 한국에서 에세이집 '어디에 있든 나는 나답게'를 출간했다.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